

# 세종대 <용비어천가>의 창제배경과 음악화 과정 연구

김세종\*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용비어천가>의 뜻과 창제배경
  - 2.1 <용비어천가>의 뜻
  - 2.2 <용비어천가>창제의 음악적 배경
3. <용비어천가>의 음악화 과정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장헌대왕실록』 권제 136~147, 「악보」에는 세종대에 완성된 음악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것을 흔히 『세종실록악보』 또는 『세종악보』라고 하는데, 세종의 독창성이 깃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보이다. 여기에는 학역재(學易齋) 정인지(鄭麟趾, 1396~1478)의 서문과 함께 《아악12궁 7성용 28성도》 《12궁 7성용 16성도》와 1430년(세종 12) 윤 12월 1일, 난계(蘭溪) 박연(朴堧, 1378~1458)에 의해 정비된 《아악보》 목록, 조희음악과 제사음악을 하나로 묶은 《아악보》를 비롯하여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의 『의례경전통

해(儀禮經傳通解)』 「시악(詩樂)」 《풍아12보》, 원나라 임우(林宇)의 『대성악보(大成樂譜)』가 실려 있다. 이외에 새 왕조의 창업에 따른 어려움과 공덕을 칭송하는 《정대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 뿐만 아니라, 고려의 향악곡인 《만전춘》 《처용가》를 개작한 《봉황음》과 <사직악장>, <종묘악장>, <풍·운·뇌·우·산천·성황악장>, <선농악장>, <선잠악장>, <우사악장>, <문선왕석전악장>, <독제악장>, <문소전악장> 그리고 1445년(세종 27) 4월 5일 지제(止齋) 권제(權跬, 1387~1445), 정인지, 고은(高隱) 안지(安止, 1377~1464) 등 3인 공동으로 찬한 한문 《용비어천가》가 차례로 실려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세종악보』 권제140~145에 수록된 《봉래의》의 노랫말 《용비어천가》를 주목하였다. 《봉래의》는 <전인자>·<진구호>·<여민락>·<치화평>·<취풍형>·<후인자>·<퇴구호> 등으로 구성된 대곡(大曲)이다. 《봉래의》란 명칭은 『서경(書經)』 익직(益稷)에 나오는데, “소소구성(簫韶九成) 봉황래무(鳳凰來舞)”라 하여 ‘순임금의 음악인 소소(簫韶)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고 한 뜻을 취한 듯하다. 그런데 봉황의 춤 《봉래의》에는 한문 《용비어천가》를 노랫말로 삼은 <여민락>과 한글 《용비어천가》를 노랫말로 삼은 <치화평>·<취풍형>이 함께 실려 있다.<sup>1)</sup> 다들 알다 싶어, 새 왕조의 용덕(龍德)을 노래한 《용비어천가》는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인정하고 있는 훈민정음이 1443년(세종 25) 음력 12월에 완성되어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되기 까지 그 사이사이에 완성된 작품이다. 곧, 훈민정음이 1443년에 완성되고, 약 16개월 후, 1445년 4월 5일에는 권제, 정인지, 안지 등에 의해 한문 《용비어천가》가 완성된다. 또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약 5개월 후, 1447년(세종 29) 2월에는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 1409~1474), 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 1417~

1)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4월 무신에는 영의정 우찬성 권제, 우참찬 정인지, 공조참판 안지 등이 올린 ‘進龍飛御天歌箋’ 10권과 『세종실록』 권147에는 ‘龍飛御天歌序’가 보인다.

\* 전남대학교

1456), 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 1417~1464),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75), 백옥헌(白玉軒) 이개(李塏, 1417~1456) 등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 《용비어천가》 125장 각 장마다 한글시, 한역시, 한문 주석을 단 한글 《용비어천가》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과 『세종악보』라는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창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처음 1445년 4월 5일 한문 《용비어천가》가 창제되고, 1447년 2월 한글 《용비어천가》가 완성되고, 이후 1449년(세종 31) 12월에 세종이 “막대기로 땅을 치며 장단을 삼아 하루 저녁에 제정하였다”(上邊曉音律. 新樂節奏. 皆上所制. 以柱杖. 擊地爲節. 一夕乃定)”고 한 《봉래의》 완성까지는 무려 5년에 걸쳐 마무리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용비어천가》의 준비 작업은 훈민정음의 완성보다 앞선다. 1442년(세종 24) 3월 1일에 보면, 《용비어천가》 준비 작업으로 선조의 사적을 민속에서 채집하기 위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를 내린다.’<sup>2)</sup> 이것은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보다도 약 2년이나 앞선 기록으로, 《용비어천가》의 준비기간이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되었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비어천가》를 중심으로 한 한문 《용비어천가》 일부를 노랫말로 삼고 있는 <여민락>(악보, 권제140)과 한글 《용비어천가》 전 125장을 노랫말로 삼고 있는 <치화평>(악보, 권제140~144)과 <취풍형>(악보, 권제145)의 노랫말 《용비어천가》의 창제배경을 음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한문 《용비어천가》와 한글 《용비어천가》가 관현에 엮어지는 과정을 비롯해 이것이 《봉래의》 무악(舞樂)으로 집대성 해 가는 일련의 음악화 과정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용비어천가》의 뜻과 창제배경

### 2.1 《용비어천가》의 뜻

먼저 《용비어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비어천가》가 지니는 뜻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예부터 용(龍)은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제왕(帝王)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는 제왕의 탄생과 용덕으로 나라를 세운 과정, 그에 따른 문덕과 무덕을 칭송하여 125장 노랫말로 엮은 것인데, 주나라의 노랫말 305편을 모아놓은 『시경(詩經)』과 견주어 마치 조선의 『시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용비어천가>의 뜻을 문헌에서 찾아보면, 이미 『명사(明史)』에 ‘비룡(飛龍)’이나 ‘육룡(六龍)’의 뜻을 취한 악곡 명칭이 보인다. 또 이형상의 『악학편고(樂學便考)』 「아악원류(雅樂源流)」에는 『회남자(淮南子)』를 인용하여 복희(伏羲)씨의 동생 여왜씨(女媧氏) 제작으로 알려진 ‘비룡어천사(飛龍御天詞)’를 소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확인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주역(周易)』 건괘(乾卦)의 ‘시승육룡 이어천(時乘六龍以御天)’이라 하여 ‘때에 여섯용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는 뜻을 주목하고 있다. 곧, 《용비어천가》의 ‘용비(龍飛)’는 ‘용이 난다’는 뜻이다. 이는 영웅이 용덕으로 뜻을 얻어 왕위에 오름을 나타낸다. ‘어천(御天)’은 ‘하늘의 바른길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일마다 천도(天道)·천명(天命)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용비어천가》는 ‘용이 날아서 하늘의 바른길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좀 더 풀어 보면 ‘용이 날아서 왕위에 오름으로써 왕은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바른길로 이끄는 노랫말’이란 뜻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세종실록』 권제90, 3월 1일에 보면, ‘진지 경상전라도관찰사 …(중략)… 시 상방육찬용비어천가 고내하차전지’ 하였다 한다.

<표 1> <용비어천가>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문헌 정리

龍飛御天歌	
▶洪武3年 定朝賀樂章 陸殿奏 飛龍引之曲	『明史』卷63, 志第39, 樂3.
▶洪武3年 定宴饗樂章 一奏起臨濠之曲 飛龍引 …(中略)… 八奏大一統之曲 名鳳凰吟	”
▶洪武15年重定宴饗九奏樂長 九奏賀六龍之曲	”
▶嘉靖間 仁壽宮落成 宴饗樂章 五奏御六龍之曲	”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初九 潛龍 勿龍 ▶大明終始 六位時代 時乘六龍 以御天	『周易』乾卦 乾爲天
▶飛龍御天詞	李衡祥 『樂學便考』 『雅樂源流』
▶海東秘錄	『高麗史』世家 第12, 肅宗2.
▶躡項 好其音 令飛龍作劄 八風之音 命曰 承雲 令鯉 先爲樂倡 鯉乃偃寢 以其尾 鼓其腹 其音英	『禮樂合編』卷志37, 『樂之制統紀』

## 2.2 《용비어천가》 창제의 음악적 배경

흔히, 《용비어천가》의 창제배경을 말할 때면, ① 훈민정음 반포이후 한글로 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 ② 새 왕조의 정당성과 창업 과정에서 선조들이 겪은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든 점, ③ 목조·익조·탁조·환조·태조·태종 등 여섯 할아버지의 문덕과 무덕을 칭송한 점, ④ 용덕(龍德)으로 왕위에 오른 점, ⑤ 후왕에 대한 훈계와 국가의 태평을 염원한 점, 끝으로 ⑥ 125장에 걸친 대 서사시라는 점을 든다. 하지만 《용비어천가》는 선초 악장을 짓고, 이것을 노랫말로 삼는 유품이 꾸준히 이뤄온 결실이랄 수 있다.<sup>3)</sup> 뿐만 아니라 선초에 지어진 대부분의 노랫말은 관현에

3) 선초 악장은 조선을 창업한 이듬해 1393년(태조 2)에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은 문덕을 칭송하는 <몽금척> <수보록> <개연로> <보공신> <정경계> <정예악> 과 무덕을 칭송하는 <납씨가> <궁수분곡> <정동방곡> 등의 노랫말을 짓고, 또 1402년(태종 2)에 호정(浩亭) 하륜(河崙)은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의 사적을 <근천정> <수명명>으로 지어 칭송한다. 따라서 이러한 악장을 짓는 유품은 성종때까지 꾸준히 이루어진 것인데, 태조때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제작된 악장과 시가를 정리한 도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사화 저, 『이조시대의 가요연구』(대양출판

없어져 제사음악으로 사용되거나, 조회, 회례 또는 잔치음악으로 채택 된 그 대미가 《용비어천가》의 창제로 집대성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용비어천가》의 창제배경을 둘러싼 일련의 의미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자.

첫째, 《용비어천가》 창제의 음악 철학적 배경에는 어디까지나 새 왕조의 국가 이념인 유교의 예악사상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의하면 “시는 마음에 감응된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말을 가락에 얹어 그 뜻을 지극히 한다”는 시언지 가영언(詩言志 歌詠言)의 가르침을 본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새 왕조를 둘러싼 이모저모를 용비시(龍飛詩)로 짓고, 이것을 백성과 더불어 노래 부름으로써 노래와 시가 하나의 도리는 ‘가여시일도(歌與詩一道)’를 성취하여 유교의 이상인 요순시절 백수술무(百獸率舞)하는 태평시대를 염원한 뜻을 담고 있다. 또 『논어(論語)』 「태백(泰伯)」에서 공자가 말한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세우고, 음악에서 완성한다”(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둘째, 《용비어천가》 창제에 따른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세종은 선초 의례에 수반되고 있는 국초 고취악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세종의 생각은 『세종실록』 권제 138, 《정대업지무》 악보 주를 통하여 그 횡간을 읽을 수 있는데, 악보 주를 소개하면 <사료1>과 같다.

<사료1> 국초의 고취악은 <수보록> <몽금척> <근천정> <수명명>을 말한다. 그런데 모두 각각 한 가지 일만을 주안하여 조종 공덕의 성대함과 창업의 어려움을 형용하는 데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세종은 고취악과 향악으로 새로 신악을 창제하였는데, 이르기를 《정대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라 하였다. 지금 삼가 이것을 기록하여 둔다.

사, 1956), 16~3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 더 많은 악장을 갈래별로 검토하여 정리한 도표를 소개하면, 조규익, 『선초악장문학연구』(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186~194쪽을 참고 바란다.

고 하였다.

이 기록 내용으로 보면, 세종은 1393년(태조 2) 정도전이 지은 <수보록> <몽금척>과 1402년(태종 2) 하륜이 지은 <근천정> <수명명>을 국초 고취악으로 지목하고, 이들 악곡이 한 가지 일만을 칭송하고 있어서 조정 공덕의 성대함과 새 왕조의 창업에 따른 어려움을 미처 다 형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보록>은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지리산 석벽에서 이상한 글을 받은 일을 노래한 것이고, <몽금척>은 태조가 꿈에 하늘에서 내린 금척(金尺)을 받았다는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sup>4)</sup> 또 <근천정>은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 중국에 가서 황제의 은택을 입고 황제로부터 예우를 받아 돌아온 일을 노래한 것이고, <수명명>은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 중국에 가서 고명(誥命)·체첩(體帖)과 인장(仁章)과 면복(冕服) 등을 가지고 돌아 온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세종의 눈으로 보면 <수보록> <몽금척>은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의 사적을 칭송한 것이고, <근천정> <수명명>은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의 사적을 칭송한 일로, 모두 한 가지 일에 한 가지의 공덕만을 노랫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다 함축적이고 내용 전개에 있어서 너무나 단편적이고 번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세종의 이러한 지적은 『세종실록』 권제50, 1432년(세종 14) 5월 기록 내용에도 잘 나타난다.

<사료2> 이제 회례 때의 문무·무무 두 가지 춤에 연주할 악장에 대하여 박연이 말하기를 ‘마땅히 지금의 일을 노랫말로 노래하여야 합니다’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니, 대체로 노랫말이라는 것은 일의 성공을 상징하여 성대한 공덕을 칭송한 것이다. 내가 살피건대 주나라 무왕은 무덕으로

써 천하를 평정하여 성왕 때에 이르러 이것을 형용하여 주공이 대무를 지었다. 역대로 다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 세상의 일을 가지고 노랫말로 삼아 노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허물며 나는 다만 왕위를 이었을 뿐인데 무슨 노랫말을 지어 칭송할만한 공덕이 있겠는가. …(중략)… 만약 반드시 그 때 그때의 세상일을 노랫말로 지어야 한다면 왕위를 계승하는 임금은 모두 다 악장을 지어야 할 것이니 어찌 그들의 공덕이 다 노랫말로 지을만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위의 <사료2>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종은 회례의 문무·무무 두 가지 춤에 불려질 악장을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난계 박연과 서로 상반된 생각을 지녔다. 박연은 회례 악장으로 세종 당대의 일을 노랫말로 삼아 노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세종은 주나라 무왕의 무덕이 성왕 때에 주공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들어 반대하고, 또 재위 시절 당대의 일을 가지고 노랫말을 짓는 한다면 왕위를 계승하는 왕은 다 노랫말을 짓게 되고, 공덕이 없는데도 노랫말을 짓는 불합리한 견해를 피력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용비어천가>의 창제는 국초 고취악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세종의 대안으로 마련된 국초 예악의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의 창제와 창제 이전 노랫말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용비어천가> 창제 이전에는 한문 시구로의례 중심의 고취음악용 노랫말인 반면에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 한글 작품이란 점에서 한글 노랫말이고,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자세하고, 이것을 담아내는 서술양식이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일만을 칭송하는 노랫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125장에 걸쳐 서사적으로 엮어 놓았다는 점을 들 것이며, 지나친 의례 중심적 음악 활용에서 탈피하여 공적 사적 잔치를 막론하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음악이자, 아악도 당악도 아닌 우리식 향악이란 점에서 <용비어천가>의 창

4) 정도전의 『삼봉집(三峰集)』에는 <납씨곡>·<궁수분곡>·<정동방곡>·<문덕곡>·<몽금척>·<수보록> 등의 악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한시 형태로 전한다. 이 중 <수보록>은 사언일구(四言一句) 총 16구로 되어 있어 시경체(詩經體)라 할 수 있고,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초사체(楚辭體)에 가깝게 되어 있다.

제배경에 따른 음악사적 의미는 큰 것이다.

셋째, 《용비어천가》의 창제배경에는 그 옛날 『시경』의 제작이 그러했듯이 민속에서 칭송되는 목조·익조·탁조·환조·태조·태종 사적을 말을 채집하는 등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1445년(세종 27) 4월 5일 권제, 정인지, 안지 등 3인 공동으로 한문 《용비시》를 세종께 진전(進箋)한다. 하지만 이미 1442년(세종 24) 3월 1일에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를 내려 6조의 사적을 수집하게 한다. 이것은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보다도 약 2년이나 앞선 기록으로, 《용비어천가》 창제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훈민정음 연구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다.

### 3. 《용비어천가》의 음악화 과정

《용비어천가》의 음악화 과정은 크게 ① 1445년 4월 5일 한문 《용비시》가 창제되고, ② 1447년 2월 한글 《용비어천가》가 완성되고, ③ 이후 1449년(세종 31) 12월에 세종이 《봉래의》 정재 무악으로 음악화 된 과정을 말한다. 일단 《용비어천가》의 음악화 과정을 말해주는 내용을 『세종실록』에서 발췌하여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세종실록』에서 본 《용비어천가》의 음악화 과정

년도	내용	비고
1442년(세종 24) 3월 1일	용비어천가 준비 시기	세종대왕께서는 용비어천가를 지을 준비로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를 내리셨습니다.
1445년(세종 27) 4월 5일	<사료3> 용비어천가서에서, 용비어천가를 편찬한 권제와 안지 등이 “관현에 없어 한없이 전하면서 보여 주게 되기를 신등은 지극히 원합니다.(彼之管絃 傳示罔極)”라는 말을 하였습	권제, 정인지, 안지 등에 의해 한문 용비어천가가

	니다.	완성되어 진전되었다.
1445년(세종 27) 9월	<사료4> 용비시를 관현에 없고자 하여 창가비로 하여금 당악에 맞추게 하니 혹은 그 음률을 잊은 것도 있고, 혹은 잊지 않는 것도 있으나, 현가의 소리가 우리나라의 음악에 합하지 않고, 무도하는 모양만이 불만하다.	
1445년(세종 27) 11월 3일	<사료5> 임금의 도승지 유의손 등에게 이르기를 …(중략)… 우리 조종은 인덕을 쌓아 집을 화하여 나라를 만들었으니 높은 공과 성대한 덕이 전고에 탁월하다. 이미 용비시로 찬양하여 공덕을 노랫말로 삼았으나, 그 체가 시경을 본 받아 사언으로 지어서 지못 뜻을 다하지 못하였다. 지금 문신으로 하여금 혹은 절구 혹은 장편, 혹은 찬, 혹은 송으로 뜻에 따라 찬술하여 공덕의 성대함을 널리 퍼서 만세에 전하고자 하니 경등은 집현전 관원 등과 더불어 나누어 지어서 올리라 하였는데 뒤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침내 짓지 아니하였다.	
1447년(세종 29) 2월	<사료6> 시로써 칭송함은 모두 선왕의 성덕과 공덕을 칭송하여 말한 까닭이다. …(중략)… 우리 전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용비어천가라고 사명하셨다. 오직 사적을 지은 바가 비록 사편에 실려 있으나, 사람들이 편열하기 어려움을 염려하시고 드디어 …(중략)… 주해를 가하라고 명하여 이에 정미롭지 못한 부분은 사적의 본말을 쓰고 다시 음과 훈을 하였다.	최항, 집현전교리 박팽년, 돈녕부 관관 강희안, 집현전 부교리 신숙주, 부교리 이린로, 수찬 성삼문, 이개, 이조좌랑 신영손 등이 주해 함.
1447년(세종 29) 5월	<사료7> 임금이 강녕전에 나와 창가와 재인으로 하여금 용비어천가를 연주하게 하였는데, 향악과 당악을 관현악으로 반주하게 하고, 노래는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1447년(세종 29) 6월	<사료8> 용비어천가를 내리신 것은 조종의 용성한 덕과 거룩한 공을 노래하고 읊게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니 마땅히 상하에 통용하여서 칭송하고 찬양하는 뜻을 극진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묘에만 쓰는데 그치지 함은 불가하오니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등의 음악을 공사간의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록 허락하시되 조참과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는 날 궁궐 밖을 나갈 때는 여민락만을 조참하는 날 환궁할 때와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거나 조칙을 맞으러 행차할 때는 여민락영을 연주하되 모두 황중궁을 쓰게 하고, 계조당에 조참하는 날 자리에 오를 때는 여민락만을 궁궐 안으로 돌아올 때는 여민락영에 모두 고선궁을 쓰도록 일정한 제도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임금이 용비어천가를 관현에 올려 느리고 빠름을 조절하여 치화평 취풍형 여민락 등 음악을 제작하매 모두 악보가 있으니 치화평의 악보는 5권이고, 취풍형과 여민락의 악보는 2권이였다.	

1449년(세종 31) 12월	<사료9>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지금 신악이 비록 아악에 쓰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조종의 공덕을 형용하였으니 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정부와 관습도감에서 함께 이를 고찰하여 그 가부를 말하면 내가 마땅히 손익하겠다, 하였다.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제했다. 신악의 절주는 모두 임금이 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저녁에 제정하였다.
------------------	--

이와 같이 《용비어천가》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고 가(歌)·무(舞)·악(樂)이 합일하는 음악양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의 음악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용비어천가》는 처음부터 음악화를 전제로 제작한 것이다. 이것은 1445년(세종 27) 4월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한문 용비시를 완성하여 진진(進筭) 문을 올릴 때 이미 관현에 얹어 널리 고취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

둘째, 한문 용비시를 완성한지 약 5개월 후, 1445년(세종 27) 9월 즈음에 용비시는 어느 정도 노래와 춤 그리고 음악의 형태를 갖추었다. 이때에 노래는 중국에 당악을 배워온 창가비로 하여금 당악에 맞춰 노래 부르게 하였는데, 어찌면 음률을 맞는 것도 같고, 어찌면 안 맞는 것도 같아 음악과 노래가 조화롭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춤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 불만하였던 것 같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 깊은 것은 이때의 한문 용비시는 『시경』의 노랫말과 같이 4언으로 된 한문 용비시를 당악에 맞춰보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한문 용비시를 노랫말로 삼고 있는 여민락에 영향을 미친듯하다.

셋째, 한문 용비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다. 일단 한문 용비시가 노래와 음악이 조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문 용비시는 『시경』을 본 받아 주로 4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으로는 선조의 공덕과 성대함을 칭송하려는 애초에 뜻과는 달라 정미롭지 못한 데에 있다.

넷째, 1447년(세종 29) 2월에 비로서 한글 《용비어천가》가 창제된다. 한문 용비시가 수정을 시작한지 약 15개월 후의 일로, 집현전 대제학 최

항, 집현전 교리 박팽년, 돈녕부 판관 강희안, 집현전 부교리 신숙주, 부교리 이련로, 수찬 성삼문, 이개, 이조좌랑 신영손 등 훈민정음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되어 《용비어천가》 125장 각 장마다 한글시, 한역시, 한문으로 주해한 《용비어천가》를 창제하였다. 이때에 세종은 비로서 《용비어천가》란 사명을 내린다.

다섯째, 한글 《용비어천가》가 창제되고 3개월 후, 1447년(세종 29) 5월에 임금이 강녕전에 나와 창기와 재인으로 하여금 《용비어천가》를 연주하게 하였는데, 향악과 당악으로 관현 반주하게 하고, 노래는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용비어천가》를 향악과 당악에 맞춰 음악만을 연주하고, 노래는 부르지 않으며, 이때 춤 또한 추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용비어천가》의 활용범위를 중요음악에 국한하던 것을 공사간의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록 한다. 또한 조참과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는 날 궁궐 밖을 나갈 때는 여민락만을 조참하는 날 환궁할 때와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거나 조칙을 맞으러 행차할 때는 여민락영을 연주하되 모두 황중궁을 쓰게 하고, 계조당에서 조참하는 날 자리에 오를 때는 여민락만을 사용하고, 궁궐 안으로 돌아올 때는 여민락영에 모두 고선궁을 쓰도록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한글 《용비어천가》의 창제 4개월 후, 1447년(세종 29) 6월의 일로, 《용비어천가》의 제도적 정비를 이루는 때이기도 하다.

한편, 《용비어천가》의 노래와 음악은 일단 1445년 한문 용비시를 완성하고 바로 관현에 올려 느리고 빠름을 조절하여 <치화평> <취풍형> <여민락> 등 음악을 제작하고, <치화평>의 악보는 5권, <취풍형>의 악보 1권, <여민락>의 악보 1권으로 악보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때의 노랫말과 음악의 느리고 빠름은 어디까지나 한문 용비시를 중심으로 악보화 음악으로 이해되며, 이때의 악보는 한문 가사를 노래 부른 <여민락>에서 그 명맥을 찾아 볼 수 있다.

일곱째, 1449년(세종 31) 12월에 “임금이 신악의 절주를 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저녁에 제정하였다.”

(上遡曉音律. 新樂節奏. 皆上所制. 以柱杖. 擊地爲節. 一夕乃定)고 한 신악은 『세종실록』 권제138, 《정대업지무》 악보 주를 보이는 《정대업》 《보태평》 《발상》 《봉래의》를 가리키며, 이때는 노래와 음악에 따른 느리고 빠름보다는 춤 동작의 음절을 세종이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세종대의 《봉래의》는 성종대로 이어져 지속과 변화를 거쳐 『악학궤범(樂學軌範)』 제5권, 「성종조 향악정재도의」의 《봉래의》로 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 4. 나오는 말

조선의 창업과 더불어 꾸준히 새 왕조의 정당성과 공덕을 칭송하려는 노력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완성으로 그 결실을 맺는다. 《용비어천가》의 창제과정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1445년(세종 27) 4월 5일 지제(止齋) 권제(權躋, 1387~1445), 학역재(學易齋) 정인지(鄭麟趾, 1396~1478), 고은(皐隱) 안지(安止, 1377~1464) 등 3인 공동으로 완성한 한문 《용비어천가》이고, 다른 하나는 태허정(太虛亭) 최항(1409~1474) 등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 1447년(세종 29) 2월에 완성한 한글 《용비어천가》이다.

그러나 《용비어천가》는 창제 당시부터 “관현(管絃)에 얹어 새 왕조의 창업을 널리 알리고, 공덕을 오래오래 칭송하고 기리기 위한 것이기(被之管絃 傳示罔極) 때문에 곧바로 음악화 작업이 가속화 되었다. 곧, 1445년(세종 27) 4월 한문 《용비어천가》가 완성된 4개월 뒤, 9월에 세종은 창가비(唱歌婢)를 불러 당률에 맞춰보았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1447년(세종 29) 2월에 한글 《용비어천가》가 완성되자 3개월 뒤, 5월에 향악과 당악에 맞춰보고 마침내 6월에는 《용비어천가》를 공사연(公私宴)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1449년(세종 31) 12월에 세종은 “막대기로 땅을 치며 장단을 삼아 하루 저녁에 제정하였다.”(上遡曉音律. 新樂節奏. 皆上所制.

以柱杖. 擊地爲節. 一夕乃定) 이때 제정된 《봉래의(鳳來儀)》 음악은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0~145까지에 전한다. 《봉래의》는 전인자(前引子)·진구호(進口號)·여민락(與民樂)·치화평(致和平)·취풍형(醉豐亨)·후인자(後引子)·퇴구호(退口號)로 구성되어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의 시용향악정재(時用鄉樂呈才) 《봉래의》의 무보로도 전하여 졌으나, 오늘날 역사의 음악으로 전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 참고문헌

##### 1. 고문헌 자료

###### <한국측 자료>

『고려사(高麗史)』 『삼봉집(三峰集)』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 『악학궤범(樂學軌範)』 『악학편고(樂學便考)』

###### <중국측 자료>

『논어(論語)』 『명사(明史)』 『서경(書經)』 『예악합편(禮樂合編)』 『주역(周易)』

##### 2. 단행본 및 논문

###### <단행본>

김상익, 『용비어천가』, 을유문화사, 1975.

김사화,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1956.

조규익, 『선조악장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장사훈, 『세종조음악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허웅, 『용비어천가』, 정음사, 1979.

###### <논문>

김세종, 「『세종실록』 악보의 취풍형보 상·하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산고』 제6집.

김세종, 『『세종실록』 악보의 치화평1·2·3에 대한 고찰』, (사)한국국악학회, 제33집.

<투고일 : 2009. 6. 30. 심사일 : 2009. 7. 16. 심사완료일 : 2009. 8. 11.>

## Abstract

A Study on Background of Originating Yongbiouchonga under the Reign of King Sejong and Process of Making it Music

Kim, Se-jeog

With the establishment of Chosun Dynasty, the effort to admire true charity of the new dynasty resulted in completion of <Yongbiouchonga>(龍飛御天歌). The process creating it is roughly categorized into two parts: one is for Chinese one jointly completed by three scholars of Gwon Jae(權蹏, 1387~1445), Jeong In-Ji(鄭麟趾, 1396~1478) and An Ji(安止, 1377~1464) on April 5, 1445( in the 27th reign year of king Sejong) and the other is for Korean edition completed by scholars from Jiphyunjeon such as Taehujung Choi Hang(1409~1474) in 1447(in the 29th reign year of king Sejong).

However, as <Yongbiouchonga> in Chinese was designed to inform the foundation of the new dynasty and honor its charity, the effort to make it music accelerated immediately. That is, four months after it was completed, king Sejong was not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to Tang's code. Three months after Korean Yongbiouchonga was completed in February of 1447, he listened it performed to Korean and Tang musical codes and decided to use it for public and private banquets. In December of 1449( in the 31th reign year of King Sejong), the king made it overnight with a stick tapping on the ground. ( 上遡曉音律. 新樂節奏. 皆上所制. 以柱杖. 擊地爲節. 一夕乃定). Music of <Bongraeoui>(鳳來儀) instituted at this time was inherited to volumes 140-145 of 『Sejong-Janghun-

Daewang-Silrok』. The <Bongraeoui> consists of as follows: Jeoninja(前引子) · Jinguho(進口號) · Yeominrak(與民樂) · Chihwapyong(致和平) · Chipunghyung(醉豐亨) · Hwoinja(後引子) · Toiguho(退口號). It was recorded in Moo-Bo of Siyonghynagakjungjae <Bongraeoui>, volume 5 of <Akhakgwebum>, but unfortunately, it is considered as music of the past.

Key words : Yongbiouchonga, Bongraeoui, Yeominrak, Chihwapyong, Chipunghyung, Akhakgwebum, Tang Music, Korean Music